목 차

Ⅰ. 머리말
Ⅱ. 제주도의 환경: 식생피복과 토지이용
Ⅲ. 생업 적응 양식 및 가설
Ⅳ. 가설의 예비적 검토
  1. 석기 조성
  2. 탄화곡물의 출현 예
Ⅴ. 맺음말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생업환경

김 민 구(전남대학교 인류학과)

I. 머리말

이 글은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의 환경을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생업활동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제기된 가설의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섬이라는 자연환경이 문화연구에 있어서 독특한 조건이 됨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 주된 이유는 바다라는 장애물이 인간 이동이나 문화 전파를 용이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한정된 지리적 조건은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섬과 관련된 고고학적 논의는 대륙 및 인근 도서지역 사이의 문화 전파, 특정 섬 내에서의 문화 진화, 인간 활동에 의한 동·식물상의 변화 등이 주가 되어 왔다(Kirch 1989; Kirch and Hunt 2000). 사회단계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장사회(Chiefdom)라는 개념이 태평양 도서지역의 고고·인류학적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여기에는 무수한 섬을 거친 주민 이동과 사회 진화, 환경 변화 등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볼 때, 섬 연구가 고고학에서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주도가 선사시대 이래 한반도로부터의 직·간접적인 문화적 영향권에 속해 있었음은 여태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로부터 쉽게 확인된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고립되어 있는 섬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남해안과 가장 가깝다. 특히 한반도 남서부 지역과 가장 가까워서 목포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42km이다(정광중 2004). 부산(286km), 대마도(255km), 구주(265km) 등 인근 다른 장소와 비교해 보아도 호남 지역과 가장 가까우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선사문화가 한반도의 남부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이청규 1995).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송국리 문화가 한반도 남서부지역과 제주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문화적 친연성의 한 단면을 말해 준다.

지역적인 근접성과 문화적인 친연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분명 한반도 본토와는 환경적으로 상이한 면이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주도의 환경은 수도작(水稻作)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 섬에서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성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에서 벼농사가 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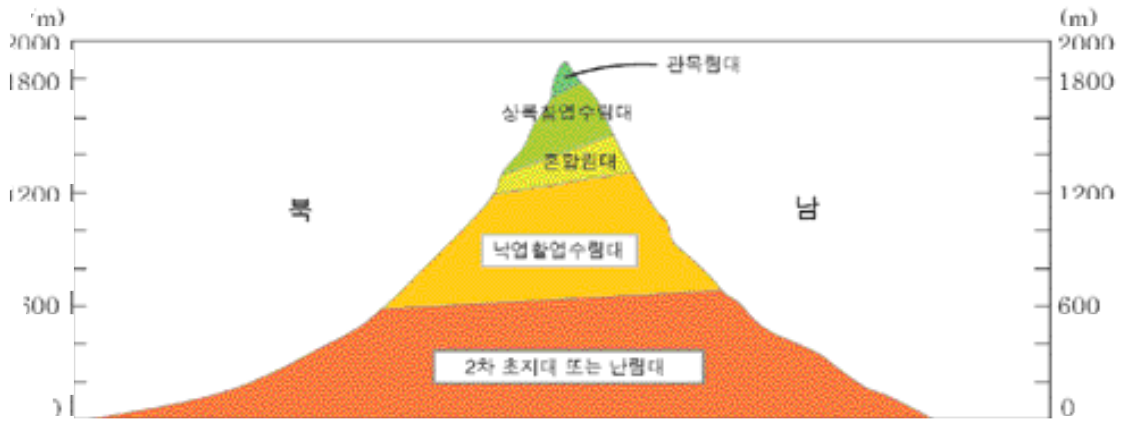
않은 것은 이 섬이 화산지형인 점에서 비롯된다. 제주도 토양은 제4기 화산활동에 의한 분출물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지표면은 침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호 2004).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는 비교적 강우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 후 빗물은 대부분 지하로 빠져 든다. 하천은 비가 내린 직후에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乾川)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논농사보다는 잡곡 위주의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도에서 벼농사가 성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 및 인류학 자료에서도 확인된다(松山利夫 1998).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의 환경적 차이는 양 지역의 밀접한 문화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선사시대 생업활동이 본토의 그것과 매우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송국리 문화는 벼농사의 집약화에 기반을 둔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송국리 문화의 출현이 본토로부터의 주민 이주에 의한 것이든 문화 전파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 개시 시기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든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든, 그 영유 집단은 본토 주민과는 매우 다른 생업활동을 했을 것이다. 나아가 생업활동상의 차이는 이와 인과관계를 지니는 사회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송국리 문화=벼농사 문화"라는 공식은 제주도까지 포함한다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 집단이 어떤 생업활동을 영유했으며 한반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고고자료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 제주도의 환경: 식생피복과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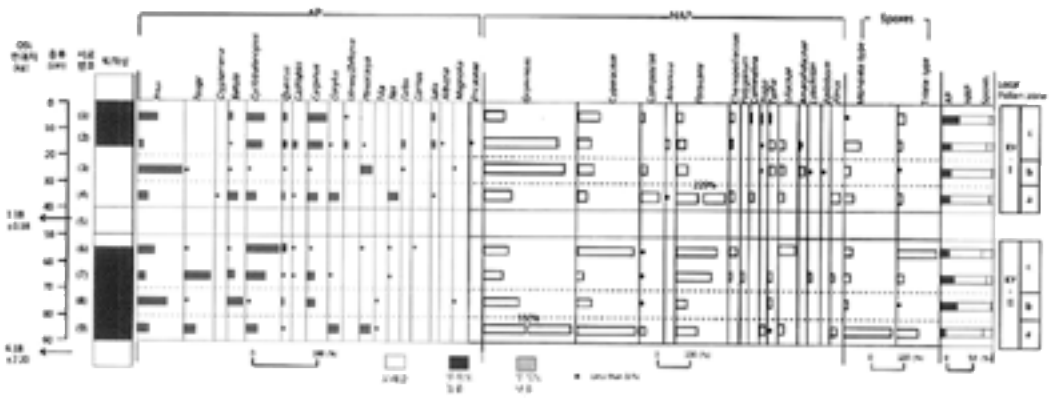
제주도 식생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식생피복의 수직적 분포이다. 화산도인 제주도는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해발고도 1,950m)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은 완만하고 남북 방향은 급한 경사를 이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식생은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200m 이하의 해안지대, 200~600m의 중산간지대, 600~1400m의 산간지대, 1400m 이상의 아고산지대로 나뉜다. 표고 200m 이하의 지역은 섬 전체 면적 중 55% 정도를 차지하며 경작지와 초지가 분포한다. 표고 200~600m 지역에서는 경작지의 비율이 줄어들고 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되며 상록활엽수림이 나타난다. 여기에 출현하는 종은 녹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동백나무 등이다. 표고 600~1400m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낙엽활엽수림지대이다. 출현하는 종은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이다. 표고 1400m 이상의 아고산대에는 침엽수와 관목림이 분포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식생은 해안으로부터 경작지, 초지,

상록활엽수림, 낙엽활엽수림, 침엽수림이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김태호 2004).



〈그림 1〉 제주도 식생의 수직적 분포

앞에서 말한 식생의 피복 상태는 현재 시점에서 관찰한 것이며 식생에는 시간적인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화분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홀로세(Holocene) 기간 동안의 제주도 식생 변화를 말해 주는 화분분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로 박지훈 · 박경(2009)이 제주도 저지대인 제주시 김녕사구 일대에서 실시한 화분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부터 6,000년 전에서 1,000년 전 정도에 속하는 기간의 시료에서는 상록활엽수 화분의 출현 비율이 높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목들은 붉가시나무(*Quercus acuta*)와 가시나무(*Q.*



〈그림 2〉 제주도 김녕사구의 화분다이아그램 (박지훈 · 박경 2009의 그림 3)

myrsinaefolia) 등이다. 앞의 연구자들은 해당 시기에 이 지역에서 이러한 수목이 주가 되는 상록활엽수림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졸참나무(*Q. serrata*)나 곰솔(*Pinus thunbergii*) 등이 이차림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삼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현재에도 제주도 표고 600m 이하의 저지대에서 상록활엽수림이 출현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불과 여덟 개의 토양 시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기별 식생의 극명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식생의 수직적인 분포는 유적의 분포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립제주박물관(2001, 2009)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전 시기에 걸쳐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발견되는 위치는 거의 대부분 해발고도 100m 이하의 해안지대이다. 역사시대까지 포함하더라도 표고 200m이상의 지대에서 유적이 발견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에 해안지대로 분류되는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고, 현재 경작지나 초지로 구분되는 곳이 생활의 터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주도 선사유적 분포 (정광중 2004의 그림 1-2)

제주도 유적 배치상의 특징은 용수 확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560㎜ 정도로서 남한지역에서 최다우지에 속한다. 연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내리며 특히 8~9월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김태호 2004).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토양은 투수성이 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은 내린 직후 땅 밑으로 투과된다. 따라서 강수량이 적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천은 강수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유수가 존재하는 건천 상태이다. 약 20여개에 달하는 제주도의 하천 중 항상 물이 있는 곳은 3

개 정도에 국한된다고 하며 지하수는 대부분 해안 근처에 이르러서만 용출한다. 제주도는 물이 부족한 상태이며 농사를 지었어도 주로 해안 근처에서만 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수도작(水稻作)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1965년 제주도 주요 작물의 작부면적 (松山利夫 1998의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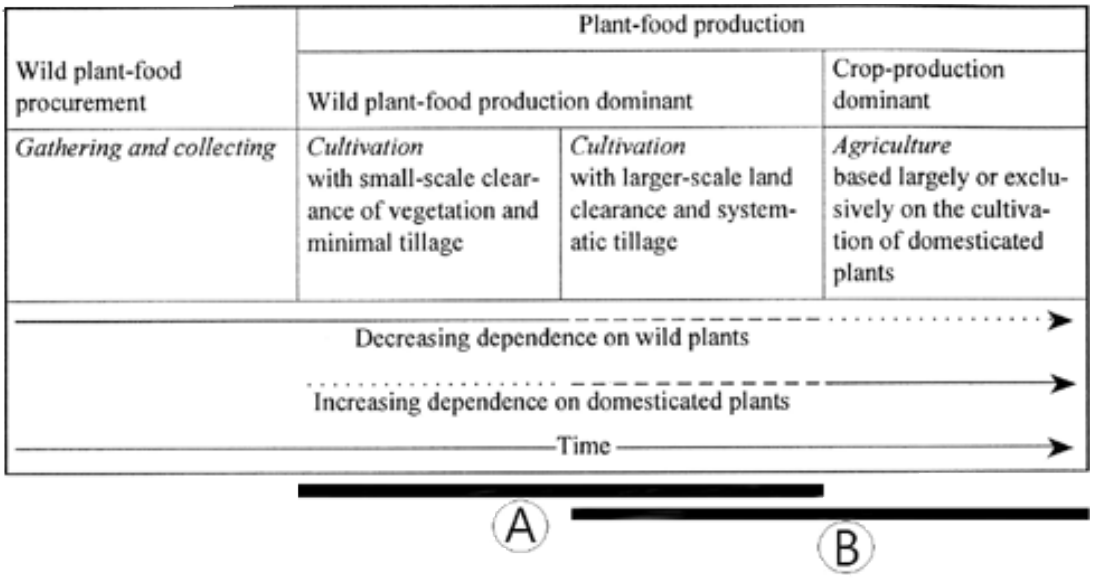
작 물 명		면적(ha)	10a당 생산량(kg)	총생산량(t)
미곡류	수도	1,028	189	1,949
	육도	3,999	76	3,049
맥류	쌀보리	19,344	114	21,921
	소맥	606	59	359
두류	대두	3,612	45	1,635
	팥	587	34	201
	기타	214	29	61
잡곡	조	17,490	65	11,339
	메밀	1,990	31	611
	옥수수	45	49	22
서류	감자	215	1,000	2,150
	고구마	11,384	1,131	128,760

제주도에서 벼농사는 최근까지도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졌다. 제주도에서는 식물생육과 작물재배에 불리한 화산회토를 '뜬땅'이라고 불러서 일반토양에 가까운 '된땅' 또는 '관땅'과 구분한다고 한다(김태호 2004). 하지만 된땅에서의 식물재배도 대부분은 조, 보리, 피, 메밀 등의 잡곡이 위주가 된다. 1965년에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은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 서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이 중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임진왜란 이후의 작물임을 고려한다면 작물생산량의 80% 이상을 점하는 것을 쌀보리와 조이다. 벼는 수도와 육도를 포함하여 12% 정도에 국한되며 작부면적 또한 작물 전체 작부면적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육도의 비율이 수도에 비해 높은 점이 주목된다.

III. 생업 적응 양식 및 가설

제주도가 벼농사에 효율적이지 않은 섬이라는 문제는 이 섬의 환경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선사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송국리형 주거지를 영위한 집단은 한반

도 본토와 분명 문화적인 친연성이 있었지만 이 섬에서 새로운 적응방식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적응방식을 택했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수렵 · 채집 · 어로와 농경이라는 단선적인 틀에서 볼 때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송국리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생계경제에서 야생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가설(그림 4의 A단계)이다. 즉 보다 비농경사회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라는 상정인데, 물론 비농경이라고 하더라도 구석기시대와 같은 단순한 단계의 수렵채집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렵 · 채집 · 어로사회와 농경사회의 양극단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생업경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은 이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중 하나이다. 소위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림 4〉에 제시된 것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농경사회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순화종(domesticate)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식물재배를 행하지만 대규모의 농토 개간이 행해지지 않은 사회, 또는 식물재배에 대규모의 노동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등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 동식물 이용의 변화 과정(Harris 1996의 Table 1.1을 수정)

두 번째로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본토와 마찬가지로 순화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농경사회(그림 4의 B단계)라면 벼를 대신한 주요 작물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에서 경작하는 작물 중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이용 가능해진 작물들이다. 이런 작물들을 제외한다면 제주도의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작물은 한반도 본토의 동시기 작물조성을 고려했을 때 맥류(밀, 보리), 두류(콩, 팥), 잡곡(조, 기장)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이른바 조렵수림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엽수림은 상록활엽수림의 다른 말인데 상록성 참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동남아시아 북부부터 일본의 남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조렵수림문화에서는 주로 조, 피, 기장의 화전농업이 성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中尾佐助 1988). 이러한 작물을 주로 하는 화전농업이 제주도 송국리문화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기록까지 화전에 관한 언급이 있음이 주목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6년(1434년) 6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전 예조 참의 고득종의 상서에 제주도에서 "무술년 이래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갈아 일으켜서 수초가 점점 부족하게 되었다(自戊戌年以來, 人多起耕, 水草漸至不足)"라는 구절이 있으며, "또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들 불을 놓아 밭을 갈므로, 만일 이런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지기가 초란하여지고 산에는 초목이 없어져서 말을 번식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且無識之類數多, 縱火耕田, 若此不禁, 則地氣焦爛, 山無草木, 馬之不蕃明矣)"와 같은 언급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9). 이런 내용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화전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IV. 가설의 예비적 검토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어떤 생업경제를 영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송국리형 주거지와 유물의 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견된 것으로, 넓게 보면 제주도 지역의 송국리 문화는 아직 확인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생업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료 수집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자료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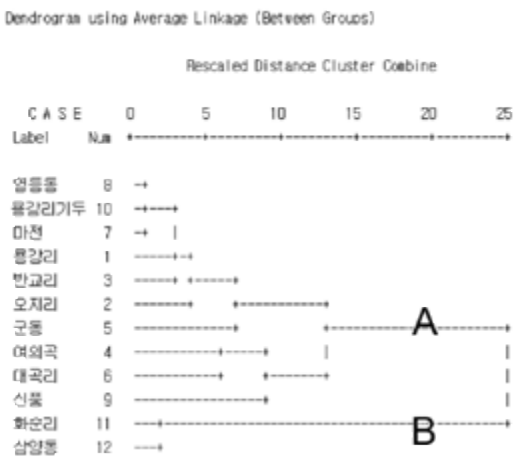
1. 석기 조성

한반도 남서부 지역과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 사이에서 생업경제상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면 이러한 차이는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 조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석기는 양식적인 요소보다 기능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따라서 생업경제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석기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업경제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석기의 종류에 따른 분류보다는 석기의 용도를

추론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고찰에서는 손준호(2008)의 석기분류안을 참고하여 주거지에서 발견된 석기를 수확구, 수렵구, 굴지구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2〉 석기의 기능별 분류

추정 기능	석기 분류
수확구	석도
수렵구	석촉
굴지구	석부
벌채구	합인석부
목재가공구	편평편인석부, 유구석부, 석착
석기가공구	지석
식물가공구	대석, 연석, 요석, 홈돌
방직구	방추차
어구	어망추
상징의례 및 기타	석검, 석창, 석봉



〈그림 5〉 유적별 석기 조성의 군집분석

〈그림 5〉는 호남지역과 제주도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발견된 석기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 뒤 이를 유적별로 합산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발견된 주거지의 수가 2기를 넘지 못하거나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석기의 총합이 2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석제가 아닌 토제의 경우에도 방추차나 어망추와 같이 재질과 상관없이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치상에 포함시켰다. 〈그림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적별로 발견된 석기를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도에 속해 있는 두 유적은 다른 호남지역의 유적들과 다른 군집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주도 송국리 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이 기능·조성적인 면에서 호남지역의 송국리 문화 유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석기 조성상의 차이는 통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자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표 3〉은 〈그림 5〉의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만든 표인데, 여기에서도 제주도에 위치한 두 유적은 한반도 남서부 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할 때 석기조성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직구의 경우에는 호남지역 유적에서는 유적별로 소량만이 발견되는 반면 제주 회순리와 삼양동 유적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발견되었다. 이는 이 두 유적에서 방직구로 분류된 방추차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가공구의 비율도 제주도가 호남지역의 송국리형 주거지보다 높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특징도 보이는데,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는 수확구로 분류할 수 있는 석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수확구로 분류된 것은 석도로, 이는 일반적으로 벼 이삭을 딸 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도의 발견 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벼농사의 성행 여부와도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의 경우에는 수렵구(석촉)의 비율도 본토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이는 제주도에서 수렵이 성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렵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 유적별 출토 석기의 기능 및 개수

유적명	수확구	수렵구	굴지구	벌채구	목재가공구	석기가공구	식물가공구	방직구	어구	기타	합계	참 고 문 헌
익산 영등동	7	12	3		17	30	6	7	4	3	89	최완규 · 김종문 · 김규정 2000
광양 용강리 기두	1	16	1	1	31	70	1		1	4	126	최인선 · 박태홍 · 송미진 2003
영광 마전	1	8			18	21		1			49	이기길 · 김선주 · 최미노 2003
광양 용강리	1	7			4	10		3			25	최인선 · 이동희 · 이순엽 2002
완주 반교리	4	4		1	2	18	1	2		1	33	안승모 · 유병하 · 윤태영 1996
곡성 오지리	1	5	2	2	2	7	1		1	1	22	이지영 · 김경미 2008
영광 군동		7	1		11	9	6	1	1		36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2001
진안 여의곡	1	9			6	7			1	4	28	김승옥 · 이종철 2001
승주 대곡리	2	21	1	1	3	8		6			42	전남대학교박물관 1989
장흥 신풍	3	48	1		7	8	3	1	32	7	110	이영철 · 박수현 2005
제주 화순리			2		1	16	114	299	6	4	442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 삼양동		7	9		14	35	19	80		5	169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2002

석기의 기능 분류를 통하여 생업경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석기의 기능을 복원해 낼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석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의 분석이 지시하는 제주도 생업경제의 특징 또한 확실히 결론짓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아울러 한 유적에서 발견된 송국리형 주거지라 할지라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유적별 석기조성 비교 또한 시기적인 변화상을 간과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한 유적에서 특정 석기가 일부 주거지에서만 다량 발견되었을 경우, 샘플링상의 문제로 인하여 유적 전체의 석기조성이 왜곡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의 고찰은 제주도의 생업경제가 한반도 남서부 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발굴된 석기 조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주도의 송국리문화 단계에서는 식물성 자원의 가공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유적에서 대석, 연석, 요석, 홈돌 등의 석기가 빈번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반면 석도와 같은 수확구는 발견례가 없어 한반도 남서부 지방의 송국리 문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식물성 자원의 이용이 성행했는지가 문제일 것인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형의 식물유체가 답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탄화곡물의 출현 예

제주도의 선사유적에서 출현한 탄화곡물의 예는 많지 않다. 그 중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정한다면 그 사례는 훨씬 줄어든다. 특히 대부분의 식물자료가 박물관 기념도록 등 제한적인 자료에서만 소개하는 형식으로 언급될 뿐이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제시된 경우는 드물다. 국립중앙박물관(2006)에서 발간한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에서도 탄화곡물이 출토된 제주도 유적은 제주 북촌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안덕 화순리 유적의 세 개 유적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신석기시대일 가능성이 있는 북촌리 유적의 탄화물을 제외한다면 송국리형 주거지와 동시기성을 상정할 수 있는 탄화물은 삼양동 유적(I지구 1호 주거지, 14호 주거지, III지구 4호 주거지)의 탄화물과 서귀포 안덕 화순리 유적의 수혈 유구에서 발견된 탄화물이다. 이 두 유적의 탄화물은 2008년 곡물자료 집성 당시에는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탄화곡물이라고만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삼양동 유적의 경우에는 본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발간사와 머리말에 쌀, 보리, 콩, 비자, 도토리, 복숭아씨 등의 자연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언급이 보인다(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이외에도 제주시 외도동 II 유적에서는 조, 수수, 후박나무 열매 등이 발견되었다고 소개된 바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9). 한편 최근에 발간된 화순리 유적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의 탄화물에 대한 분석 결과 참나무속의 도토리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동정 결과와 출토 맥락이 확실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표4〉 제주도 송국리형 주거지의 탄화곡물 출현 예

유 적 명	출토 내용	참 고 문 헌
제주시 삼양동 1559번지 일대	탄화곡물	국립중앙박물관 2006
제주시 삼양2동 2247-1번지 일대	탄화곡물	국립제주박물관 2009
제주시 외도동II 유적	조, 수수, 후박나무 열매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서귀포 안덕 화순리 610번지 일대	탄화곡물(도토리)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V. 맺음말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는 한반도 본토와 밀접한 문화적 친연성을 가진다. 하지만 송국리형 주거지를 조영했던 집단이 제주도에서 적응해야 했던 환경은 본토의 그것과는 상이한 면이 적지 않았다. 환경상의 차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식생의 상이함과 용수 확보의 문제였을 것이다. 식생과 용수

확보의 문제는 결국 제주도 송국리 문화 집단이 본토와는 다른 새로운 생업경제를 영위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의 환경은 특히 수도작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벼가 이용되었다면 이는 수도작에 의한 것 보다는 육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아가 본토와의 교역을 통해 수입된 위세품적인 성격도 상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석기 조성과 탄화곡물 출현 예에 의하면 제주도 송국리 문화 단계에서 식물성 자원이 중요시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이용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 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동북아 선사문화 연구총서.

국사편찬위원회, 2009, 조선왕조실록 국역, 원문자료 http://sillok.history.go.kr.

김승옥 · 이종철, 2001,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Ⅷ 如意谷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 鎭安郡 · 韓國水資源公社.

김태호, 2004, 「제2장: 제주지방-자연 및 생태환경」『한국지리지-제주편』국토지리정보원.

박지훈 · 박경, 2009, 「화분분석으로 본 제주도 김녕사구 일대의 후빙기 중기 이후 환경변화」『한국지형학회지』제16권, 1호, pp.43~55.

손준호, 2008,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경제」『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pp.51~71.

松山利夫, 1998, 「제주도의 전작농경문화」『제주도사연구』제7집, pp.105~120.

안승모 · 유병하 · 윤태영, 1996, 『完州 盤橋里 遺蹟』, 國立全州博物館.

이기길 · 김선주 · 최미노, 2003, 『영광 마전 · 군동 · 원당 · 수동유적-구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문화』, 조선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이영철 · 박수현, 2005,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Ⅳ 長興 新豊遺蹟Ⅰ』, 湖南文化財硏究院 · 韓國水資源公社.

이지영 · 김경미, 2008, 『谷城 梧枝里遺蹟』, 馬韓文化財硏究院 · 谷城郡.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학연문화사.

中尾佐助, 1988, 「先農耕段階とその類型 -農耕起源論と關連して-」『畑作文化の誕生 -縄文農耕論へのアプローチ』佐々木高明 · 松山利夫 編, pp.325-344, 日本放送出版協會.

全南大學校博物館, 1989, 『住岩댐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Ⅵ)』, 全南大學校博物館, 全羅南道.

정광중, 2004, 「제1장: 제주지방-과거와 현재」『한국지리지-제주편』국토지리정보원.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제주 삼양동유적-II · III지구』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 삼양동유적-I · IV지구』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 화순리유적』제주문화예술재단 ·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최완규 · 김종문 · 김규정,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 · 百濟文化硏究所 · 益山市.

최인선 · 박태홍 · 송미진, 2003, 『光陽 龍江里 機頭 遺蹟 -광양 용강초등학교 신축부지-』,

順天大學校博物館, 全羅南道光陽敎育廳.

최인선 · 이동희 · 이순엽, 2002, 『광양 용강리 유적Ⅰ-용강리 택지개발지구-』, 순천대학교 박물관 · 광양용강토지구획정리조합.

Harris, D. R. 1996. Introduction: themes and concepts in the study of early agriculture, The origins and spread of agriculture and pastoralism in Eurasia, Smithsonian, pp. 1-9.

Kirch, P. V., 1989, The Evolution of the Polynesian Chiefdo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rch, P. V. and T. L. Hunt, 2000, Historical Ecology in the Pacific Islands. Yale University Press.